

치솟는 금리·전셋값에 “덜덜”...시름 깊은 세입자들

“집값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 집 사는 건 엄두 못 내” 전셋값 2년간 1.8억 ↑...세입자 떠밀리듯 월세 선택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 걱정이입니다. 지금 가장 싼 인터넷 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대 초반인데 계속 오를 거라고 하니 막막하네요. 그나마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결혼 앞둔 30대 회사원 A씨)

“돈도 없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집을 사는 건 엄두도 못내요. 예비신부와 제 직장이 성수동과 용산이지만 서울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사시는 일산에 전셋집을 얻기로 했어요. 출퇴근이 힘들긴 하겠지만 서울보다는 전셋값이 조금 싼 편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결혼 앞둔 30대 회사원 A씨)

이달 말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 2년째를 맞게 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계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792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 4억9922만원에 비해 1억7870만원 올랐다.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하는 이들

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의 폭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4억 2439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9148만원)까지 약 3년 동안은 6709만원 올라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엔 약 2년 동안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처럼 전셋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자 세입자들은 ‘올벼 겨자떡’으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없는 돈에 맞춰서 반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며 “대출을 받으려 해도 무한정 받을 수 없으니 반전세를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반전세 계약 비중이 치솟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임대차거래(10만5421건) 중 월세 건 계약(4만 2087건)의 비중이 39.9%로 지난해 같은 기

간(35.8%)보다 4.1%포인트 늘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5563가구 대단지 ‘리센츠’의 경우에도 지난 5월에 체결된 반전세·월세 계약이 36건으로 전세 계약 35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들어 월세 건 거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이를 월세로 충당하려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린 것도 월세화를 가속화시킨 데 한몫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후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솟고 있는 시중 은행 대출금리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웃돌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갚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19%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반 해도 전세대출 금리가 2% 중후반 수준이어서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올려 주는 게 유리했지만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연 3.59%, 최고 연 5.67%다.

합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월세 이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때때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뛰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월세지수는 102.8을 기록했다.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난 2020년 8월(91.4)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도봉구 청동역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 거기에 맞춰 집주인들도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한다”며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50만원 정도를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은행 금리보다는 월세가 조금 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승호 기자



무더위에 지친 입맛 되살리는 ‘피치 음료’ 붐

복숭아 활용, 다양한 음료 출시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친 입맛을 되살리는 시즌 음료로 복숭아의 풍미를 가득 담은 ‘피치 음료’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매년 여름 시즌만 되면 큰 인기를 얻는 복숭아가 제철을 맞으며,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 출시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복숭아보다 당도와 과즙이 풍부한 ‘납작 복숭아’ 인기까지 더해지며 업계 내 복숭아 열풍이 불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복숭아가 제철을 맞으면서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라며 “특히 평소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와 여름 과일 찾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돌(Dole) 코리아의 ‘돌 피치파라다이스 주스’는 대표 여름 과일인 복숭아를 활용한 제품이다. 복숭아 고유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과즙 100% 주스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고 농축 과즙을 사용해 복숭아 고유의 달콤 상큼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샘표의 차 전문 브랜드 순작이 올 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날려줄 ‘납작복숭아차’를 출시했다. 이 차는 스페인산 납작복숭아와 잘 어울리는 허브 블렌딩 베이스로 더욱 풍부한 향을 선사한다.

콜드브루 방식을 적용해 납작복숭아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렸으며, 스테비아 잎으로 단맛을 내 칼로리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SPC삼립의 프리미엄 블렌디드 티 브랜드 티트라가 출시한 ‘피치아쌔티’는 특유의 깊은 풍미가 있는 아쌔차에 복숭아과즙을 더해 달콤하고 진한 홍차 맛이 특징이다. 또 ‘레몬그린 티’는 향긋한 해남녹차와 레몬과즙을 블렌딩해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코카-콜라사의 스파클링 브랜드 씨그램이 새롭게 선보인 ‘씨그램 피치’는 마지막까지 톡쏘는 탄산의 짜릿함에 달콤한 복숭아향을 은은하게 더해 깔끔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웅진식품은 블렌딩티와 스파클링이 어우러진 ‘티즐 스파클링’ 2종을 출시했다. 다양한 티와 리얼 과즙의 상큼함을 담아냈으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로 칼로리로, 건강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이슬비기자

삼성 무풍에어컨 국내 누적 판매 700만대 돌파...출시 6년 만

가정용 무풍 시스템에어컨 성장...2분기 판매 40% ↑



삼성전자는 17일 삼성 무풍에어컨이 지난 14일 기준 한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7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2016년 세계 최초로 무풍에어컨

을 개발하고 ‘직바람 걱정 없는 쾌적한 냉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지 6년 만이다. 매일 평균 약 3000대가량 판매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스탠드형이 200만대 이상, 벽걸

이형과 시스템 에어컨(전장형)이 각각 215만대, 285만대 이상 판매됐다.

최근에는 스탠드형·벽걸이형 외에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 성장 중이다. 가정용 무풍 시스템 에어컨의 올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한층 슬림한 디자인의 ‘무풍에어컨 갤러리 슬립핏’,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 간절기에도 사용하기 좋은 ‘무풍에어컨 갤러리 체온풍’까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황태환 부사장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풍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냉방 성능은 물론 위생·공기정정·친환경 등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에어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풍에어컨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성수기에도 무풍에어컨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 라인을 2월부터 풀가동 하고 설치 인력을 사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해외 대신 한국에서...여름 ‘영어문화 체험’ 프로그램 인기

원어민 선생님과 체험 학습·집중 몰입캠프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외로 나가는 일이 다소 부담스러워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여름 방학을 활용해 영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윤선생은 내달 10일 경기도 가평군 청리읍에서 체험형 영어·드론 융합 프로그램 ‘제1회 청리읍 스팀(STEAM) 어린이 캠프’를 연다.

참가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다. 또 항공원과 코딩을 배우고 드론 비행도 직접 체험한 뒤 드론 관련 영어 퀴즈를 풀고, 드론 미션을 수행하는 조별 대항전을 가진다. 청리읍 주변 자연 생태 탐방 등도 마련했다.

캠프 참가 가능 연령은 초등 4~6학년생이다. 윤선생 학습회원과 한컴그룹 임직원 자녀들은 신청할 수 있다.

청담어학원 수지브랜치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22 여름방학 3주 영어 집중 몰입캠프’를 진행한다. 해당 캠프는 여름방학 3주 동안 영역별 커리큘럼에 따라 집중 학습해 단기간에 실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주 5일 캠프 프로그램 통해 영어 노출 시간

을 극대화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언어 역량 뿐만 아니라 영어 사고력과 독점력을 향상에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온라인에서 영어권 현지 선생님과 학습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온라인 키즈 영어 플랫폼 버드비는 여름 방학을 맞아 ▲동물 탐험 ▲책 How to Catch 시리즈 읽기 ▲ABC 끝장내기 ▲토론하는 북클럽 ▲누가 이길까? 논픽션 시리즈 ▲실전 체스 클럽 ▲잠든 뇌 깨우기 등 다양한 체험 수업을 선보였다.

버드비는 미국 현지 공립학교 전현직 교사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의 클래스를 직접 등록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집에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버드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여름 방학 클래스들은 매주 1~2회 정격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된다.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영어를 활용하고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일회성 단기 수업도 다양한 주제로 등록돼 있어 아이의 성향과 스케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온라인 홈스쿨링 플랫폼 아웃스쿨은 여름방학 화상캠프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여름화상캠프는 해외 캠프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미국 현지 교사 및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어 글로벌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 3세부터 18세까지 참여 가능한 이번 캠프는 영어 집중 캠프부터, STEM, 토론 캠프 등 연령별·주제별 다양한 캠프가 마련되어 있다. 1주 단기부터 2주~3주 등 선택 과정과 주 4일, 하루 2~3시간 등 다양한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재환기자

세븐일레븐, ‘레트로 콘셉트’ 아이스크림 출시

세븐일레븐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색 아이스크림 ‘아이스샤구르트’와 ‘우유미’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스샤구르트’는 사인머스캣과 요구르트를 더해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파우치형 사베트 아이스크림으로, 생유산균이 1억 마리 이상 함유된 파스퇴르 요구르트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유미(우유풍당미숫가루)’는 미숫가루를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시킨 레트로 콘셉트 상품이다. 1등급 국산 우유 34%에 국산 오곡미숫가루를 더해 부드럽고 고소하며, 아이스크림 안에 찹쌀떡이 들어가 있어 쫄쫄득득한 식



감까지 즐길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다음달 말까지 이번 신상품에 대해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는 ‘2+1’ 행사를 진행한다.

뉴시스